



군종주보

2019년 9월 1일(제944호) 연중 제22주일(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 동수 마이 컷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때 개그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저 역시도 친구들과 농담을 하며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구2’라는 영화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배가 주인공에게 외국에 잠시 나가 있어 달라는 말에 주인공이 “마이 컷네.”라는 말을 남기는 장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친구1’에서의 장면과 겹쳐지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영화에서 “마이 컷네.”라는 말을 듣고 있는 두 인물은 자신들이 마치 한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라도 된 마냥 취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마이 컷네.”라는 대사는 두 사람의 상황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그 “마이 컷네?”라는 말이 그저 자신들을 아래로 본다 고 생각하게 만들어 두 사람끼리 서로의 처지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1독서와 복음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자칭 윗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이 컷네.”라는 말을 던지고 계신 장면인 것 같습니다.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높아짐을 경계하라 이야기하지만 벌써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친구’ 영화에서처럼 안타까운 결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사실 언제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부터?”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자리로 보내버립니다. 물론 물리적인 끝자리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끝자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자리로 가는 것이 두려워 보여주기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또한 결국 우리를 끝자리로 보내 버립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듯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높아지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끝자리로 가는 두려움에 나 자신을 바꾸어보겠다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말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컷네. 우리 ○○이. 언제부터?”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높은 자리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어느 위치에 놓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중 부끄러움이 밀려올 그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승기(안토니오)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집회 3,17-18.20.28-29
- 회 답 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 2 독 시 히브 12,18-19.22-24ㄱ
- 복음 권 호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 음 루카 14,1.7-14
-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윤지충 바오로



성인명: 윤지충 바오로 (尹持忠 Paul)
신분: 진사,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59-1791년

윤지충(尹持忠) 바오로는 1759년 전라도 진산 장구동에 거주하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는 '우용'이며,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전주에서 순교한 윤지현 프란치스코가 그의 동생이다.

본디 총명한 데다가 품행이 단정하였던 윤 바오로는 일찍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1783년 봄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또 이 무렵에 고종사촌 정약용 요한 형제를 통해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으며, 다음 해부터는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 읽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3년 동안 교리를 공부한 그는, 1787년 인척인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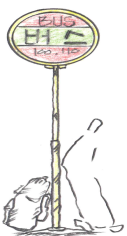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가 조선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윤 바오로는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집 안에 있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불살랐다. 또 이듬해 여름, 윤 바오로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유교식 제사 대신 천주교의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이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하였다. 윤 바오로가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얼마 안 있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 소문은 조정에까지 전해졌고, '윤지충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진산 군수에게 내려졌다.

체포령 소식을 들은 윤 바오로는 충청도 광천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진산 군수는 윤 바오로의 숙부를 감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윤 바오로는 곧바로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다. 그때가 1791년 10월 중순경이었다. 진산 군수는 먼저 윤 바오로를 달래면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는 천주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진산 군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윤 바오로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주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윤 바오로는 이튿날부터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전라 감사는 그에게서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을 얻어 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윤 바오로는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윤 바오로는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사의 불합리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이에 화가 난 감사는 그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윤 바오로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전주 감사는 할 수 없이, 그들에게서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내 조정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고, '윤지충을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게 되었다. 결국 임금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형을 허락하였으니 그때가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로, 칼날을 받은 윤 바오로는 32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기다림



가끔은
 오지 않는
 버스를
 무작정 기다리며
 힘을 빼는
 경우도 생기지.

그래도
 울 거야.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지.

성화이야기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콘타렐리 경당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콘타렐리 경당, 이탈리아 로마

1565년 프랑스 출신 문시톨 마테오 콘타렐리는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경당을 자신의 이름 성인인 마테오를 주제로 꾸미기로 결심하나, 그가 작고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왼쪽부터 성마테오 복음사가를 부르는 예수님, 천사로부터 영감을 받는 성마테오 복음사가, 오른쪽은 성마테오 복음사가의 순교장면을 그린 제단화가 걸려있다. 9월에는 위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테오복음서를 자주 접하면서도, 성마테오 복음사가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수님이 마테오를 부르는 내용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마테오 복음(9,9)에서는 마테오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마르코 복음(2,14)에서는 마테오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다고 적혀 있으며, 루카 복음(5,27)에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마테오는 세리로서 가파르나움에서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 유대인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했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반역자로 여기며 극도로 혐오했다. 마테오가 어떻게 사목활동을 하였는지 성경에서는 전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한 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널리 알리는 사목, 전교활동에 힘쓰다가 에티오피아 또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도 전해진다. 또한 노환으로 자연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창, 칼, 또는 도끼에 맞아 순교했다는 엇갈린 주장도 전해진다.(경향잡지 2005년 9월호 중)

어찌 되었든 죄인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 혹은 소외당했던 인물이었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사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카라바지오가 그린 <마태성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다(성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은 9월 21일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틸리대 박상인 신부

◆ 교구장 동정

- 순교자 성월 개막미사
 때·곳: 9월 1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9월 3일(화) 10:30, CBCK

- 백마(9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9월 5일(목)
- 한밭(32사단) 성당 신임신부 방문
 때: 9월 6일(금)

◆ 군중부원회 월례미사

때·곳: 9월 2일(월) 15:00,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